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2013. 01. Vol 220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얼씨구, 소망의 불꽃 하나

얼씨구

새해 첫날부터 눈이 오는구나
정초(正初)에 오는 눈은 서설(瑞雪)이라더니
천지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구나
내리는 눈으로 해서 저 하늘과 땅 하나 되고
홍겨운 춤사위 천지에 가득하구나
지화자 좋다 땡이로구나

그래, 그래

저렇게 내리는 눈처럼 계사년 새해
좋아 죽고 못 사는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처녀 총각들 다 시집 장가가서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 잘도 낳아서
여름밤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애기들 울음소리 천지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다 순조롭기만 해서
저 펄펄 날리는 눈처럼 돈다발이라도
아니, 돈 다발이 좀 그렇다면
기가 막혀 죽을 만큼 좋은 일들만
명사십리 그 반짝이는 모래알처럼 많아서
웃음을 뭉쳐 만든 웃음폭탄이 하늘에서
터지고 또 무수히 터져났으면 좋겠다

눈 덮인 저 들녘 끝에서 언제나 봄은 오듯이
눈 내리는 새해 아침 우리네 가슴 속에도
얼씨구, 소망의 불꽃 하나 고요히
피어났으면 좋겠다



임 승 빈

- 시인, 청주대 교수
- 시전문계간지 『딩아돌하』 주간

Contents

2013. 01. Vol 220



소백산 설경
(자료제공 : 단양군청)

- 4 신년사
- 5 2013년도 의회 운영방향
- 6 2013년도 예산 심의
- 8 무상급식 예산 분담 전격 합의
- 10 2013년도 행정 사무감사
- 12 되돌아본 2012년 의정활동
- 14 상임위원회 활동
- 21 대집행부질문·답변
- 22 주요처리의안
- 24 5분 자유발언
- 26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충북 미래에 희망의 길을 놓겠습니다



김 광 수 의장

기대와 희망을 담은 2013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우리 충북에도 꿈과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 넘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저희 충북도의회는 올 한해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定都)이래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는 충북의 발전을 위해 협력 역할을 다함은 물론,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도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연구하는 의원, 일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통합시가 충북발전의 진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치실현을 막는 장애물을 거둬내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밑그림에 꼼꼼히 색깔을 덧입혀 저희 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그리고 충북의 미래에 희망의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선진지방자치 구현과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을 열어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새 아침에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광 수 드림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 여는데 역량 집중

‘소통의회·민생의회’ 정착시켜 도민 기대 충족

도정 발전의 한 축인 충북도의회는 계사년 새해를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을 열어가는 한해가 되도록 의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내 지역 간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과 함께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지역발전과 도민화합을 이끄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장실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도민, 시민단체, 집행부, 소수당 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의회’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요 정책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하거나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틀을 정비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 2013년도 연간회의운영 계획 〉

회 기	일 자	회의일수	주요 내용	비 고
제317회 임시회	1.22.(화) ~ 1.31.(목)	10일	□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안건심의	
제318회 임시회	3. 5.(화) ~ 3.15.(금)	11일	□ 안건심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삼일절(3.1)
제319회 임시회	4.16.(화) ~ 4.25.(목)	10일	□ 안건심의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320회 임시회	5. 7.(화) ~ 5.16.(목)	10일	□ 제1회 추경(교육청) □ 안건심의	※ 개원61주년 5.29 ※ 어린이날 (5.5) ※ 부부의 날 (5.21) ※ 결산검사(5월-6월)
제321회 임시회	6.11.(화) ~ 6.21.(금)	11일	□ 제1회 추경(도) □ 안건심의	※ 현충일(6.6)
제322회 정례회	7. 1.(월) ~ 7.12.(금)	12일	□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2012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 안건심의	※ 제헌절(7.17)
제323회 임시회	9. 3.(화) ~ 9.13.(금)	11일	□ 제2회 추경(도, 교육청) □ 안건심의	※ 추석연휴(9.18-20)
제324회 임시회	10. 8.(화) ~ 10.18.(금)	11일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안건심의	
제325회 정례회	11.12.(화) ~ 12.20.(금)	39일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4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2013년도 제3회 추경(도, 교육청)	
○ 총 9회, 125일 - 정례회2회51일,임시회 7회 74일 ○제2조(연간회의 총일수) : 130일 이내(필요시 연장가능) -제3조(회기)정례회(연2회, 60일 이내),임시회 회기(15일 이내)				

※ 단,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3년도 예산 심의

충청북도 새해 예산 3조 3,703억원 확정

72건 380억원 삭감 ... 누리과정 국고지원 촉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16회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94억 2,190만 5천원이 증액된 3조 3,703억 8,167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19억 2,199만 원 증액된 2조 8,905억 6,05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4억 9,991만 5천원 증액된 4,798억 2,111만 7천원이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8개 사업 323억 87만 4천원을 삭감해 예산액을 2조 8,582억 5,968만 1천원으로 했고, 세출은 72개 사업 379억 1,496만 6천원을 삭감했다. 세입에서 삭감된 누리사업비 등 8건 323억 87만 4천원을 제외한 56억 1,409만 2천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특별회계는 3개 사업 1억 7,503만 6천원을 삭감해 예비

비로 조정했다.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미충족시킨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가)내시가 없음에도 추정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을 삭감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경종을 울렸다.

이같은 예결특위의 특단의 결정은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한몫했다.

또 예결특위 의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한 탄력적 집행을 위해 편성하는 'POOL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일부는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술용역 POOL예산 등의 규모를 줄이는 수술을 단행했다. 또한 의원들은 전산시스템 유지보

수비의 산출기준이 부서별로 제각기 다른 것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우리도에서는 지나치게 예산의 탄력적 운용에만 주안점을 두어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295억원(6개월분)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도의회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특히 사전절차가 미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 및 증액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복지위원회=301억 5,966만6천원

△ 오송화장품박람회 충북관 설치운영 1억원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1억 5천만원 △누리과정지원 295억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원

□ 행정문화위원회=39억 2,500만원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1억원 △충주시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 5억원 △제천시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 5억원 △괴산군 산막이산행 유정마을조성 5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6천만원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조성 3억 9천만원

□ 산업경제위원회=11억 6,730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원 △솔라페스티벌 개최 1억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1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 2억원 △1인창조기업지식산업화 지원 2억원

□ 건설소방위원회=26억 6,300만원

△용곡-청안지방도 확포장공사 1억 5천만원 △용곡-미원지방도 확포장공사 1억원 △전국자전거 국토순례홍보 3천만원 △바이오밸리 분양투자유치 설명회 3천만원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

회계별	제출예산액	시정·처리요구	계수조정결과	
			증(예비비)	감
계	3,370,381,672	3,338,080,798	5,789,128	38,090,002
일반회계	2,890,560,555	2,858,259,681	5,614,092	37,914,966
특별회계	479,821,117	479,821,117	175,036	175,036

2013년도 예산 심의

도교육청 새해 예산 1조 9,648억원

41개 사업에 495억 5천만원 삭감

충청북도교육청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662억 2,848만 6천원이 증액된 1조 9,678억 2,304만 6천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1건 32억 5,000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누리사업비 등 41개 사업에 495억 5,000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번에 삭감된 주요 내용은 (가칭)예성 단설유치원 설립비 51억 2,900만원과 세출예산 예비비 29억 9,491만원, 학습부진학생지도 3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 3억

3,900만원, 성희롱 및 성교육자료 발간 6,000만원,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비 5,000만원, 충북교육 소식지 발간 4,960만원, 학교장 등 관리자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2,500만원, dots리현교육청 교육사업비 2,641만 4,000원 등이다.

2013년도 충청북도 교육청 예산 (단위:천원)

회계별	제출예산액	확정예산액	계수조정결과	
			증(예비비)	감
계	1,967,823,046	1,964,577,692	49,547,541	49,547,541

도의회 중재로 무상급식 예산분담 전격합의

협의기구 구성... 매뉴얼 만들어 논란 차단키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논란이 도의회 중재로 해소돼 전국 최초의 전면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계속 추진된다.

김광수 도의회의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이시종 도지사와의 이기용 교육감 간 무상급식비 분담문제를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충청북도가 880억원, 충청북도교육청이 946억원이 필요하다고 각각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그동안 논

란을 빚었다. 중재 결과 최종 합의 내용은 무상급식 총액은 933억원으로 하고 운영비 차액 25억원은 충청북도가, 인건비 차액 28억원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분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무상급식에 따른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50대 50 분담 원칙 고수와 학부모 부담 불가 원칙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해 왔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충북도와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을 재편성해 조정하게 된다.

무상급식 국비 2,010억원 책정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올해 무상



▲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 12월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급식 관련 국비지원금으로 교육청 직접지원비 1,5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간접지원비 2,010억원 등 총 3,510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충북도에 120억원 가량의 무상급식비 재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격한 논쟁에 휩싸였던 학교급식비 분담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무상급식비 국비확보를 위해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TF팀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여·야 정당 등에 재원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무상급식비 전액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학교급식법개정안’을 국회의원과 정당에 제출하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충청북도는 2013년도에 한정된 국비지원이지만 충북도가 주관이 돼 건의한 결과 2,01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 「통합 청주시법」 통과 ‘낭보’

행·재정적 지원방안 담아 ... 청원청주 통합추진에 탄력

도의회, 건의문 채택·국회 방문 등 제정 노력

충북도의회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청원·청주통합 추진지원단을 비롯한 도민들과 함께한 통합 청주시법 제정 노력이 새해 첫날 결실을 맺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 청주시법)이 새해 첫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로 결정된 청주청원 통합이 법적 절차를 완료하게 됐으며 추진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과된 통합 청주시법은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 지원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상생발전 방안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의회는 각급 기관 및 도민들과 함께

2012년 말까지 통합 청주시법 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이어 11월 5일에는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추진 공동위원회 등 7개 기관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국회를 방문해 통합 청주시법 통과와 재정지원 방안마련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애)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에 현안 건의 등 다각적인 청원·청주 통합 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통합 청주시법 원안처리 촉구 건의문

지난 6월 청원과 청주는 전국최초로 주민이 주도하여 역사적인 자율통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주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에서 원만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상생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지원특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160만 도민은 통합 청주시법이 원안 그대로 금년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각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연내에 처리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통합청주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군구 통합의 모범적인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여야 한다.

2012년 11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주요사업 사전 분석·확인 … 강도 높은 심사

집행부에 총 398건 (시정 176, 건의 222) 조치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추진 사업에 대한 분석과 확인 등 사전준비와 함께 준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사 규정에 따라 강도 높고 심도 있게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176건의 시정·개선

요구 사항과 222건의 촉구·건의사항 등 모두 39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12월 20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1,25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198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는 의회사무처 수련회 관련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 등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33건, 청소년 자살률 1위에 대한 대책마련 등 건의 및 촉구사항 58건을 지적했다.

또 행정문화위원회는 인사 운영 합리성 제고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8건, 행정용어순화운동 적극 동참 등 건의·촉구사항 7건을 도출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 시·군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례에 맞도록 개정 하는 것 등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8건, 태양광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등 촉구



▲ 충북도의회는 12월 13일 부터 25일까지 13일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구 및 건의사항 52건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 수립 시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추진 등 시정 요구사항 31건,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것 등 촉구 건의사항 60건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글바로쓰기 대회 명칭을 ‘한글사랑 큰 잔치’로 통일시키는 등 개선 요구사항 46건, 농산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추진 등 건의 및 촉구사항 43건을 조치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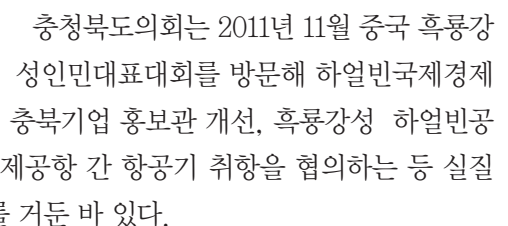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결과〉

위 원 회 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계	398	176	222
의회운영위원회	1	0	1
정책복지위원회	91	33	58
행정문화위원회	45	38	7
산업경제위원회	80	28	52
건설소방위원회	91	31	60
교육위원회	90	46	44

위원장·성장 등과 회담…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에서 교류와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상호 우호증진·교류협력 확대 방안 모색



되돌아 본 2012년 의정활동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 실현 위해 동분서주”

숨 가쁘게 달려온 2012년도 한 해 동안 도의회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를 기치(旗幟)로 열정을 쏟았다.

2012년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초대 도의회가 문을 연지 이순이 되는 해로, ‘충청북도의회 60년사’ 자료집과 ‘사진으로 보는 충청북도의회 60년’ 화보집을 발간했다. 충북도의회 6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의회 100년의 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진 것이다.

또한,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시 약속한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운영, 열린 의회구현,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각 분야별로 충북도의회 2012년도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사회적 약자’ 위해 최선

지난해에도 도의회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썼다. 대형 유통 공룡들의 무차별적인 지역 상권 장악을 막기 위해 상생

발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고, 9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충청북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소통하는 열린의회 실현

도민들이 언제라도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모든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울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고, 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우수의원을 표창했다.

이는 의원들 개개인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성실히 공부하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

도정의 감시·견제장치로서의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매회기별로 의원들이 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민 제보의 방’을 개설하여 예산 낭비사례, 제도개선과 건의 사항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러한 집행부 감시·견제에 대한 높은 의지로 201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집행부에 176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222건을 건의했다.



지역현안 해결 적극 대처

정부의 국립암센터 분원설치 백지화 발표에 맞서 규탄대회와 대도민 토론회 개최하였고, 주요 정당에 총선 공약화를 건의하는 등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 재추진

진 노력을 기울였다. 통합시의 성공적 출범을 뒷받침할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안타까운 도민의 마음을 중앙에 전달했다.

주변국과 ‘협력외교’ 확장

지난 11월 중국 광저우자치구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2013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참가,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한·중 문화예술 교류추진 등에 대해 중국대표단의 적극적 협력의지를 이끌어 냈다. 또한 베트남 빈푹성인민위원회와는 지역발전을 위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국제교류의 폭을 한층 넓혔다.

안정적인 복지정책 지원 뒷받침

2012년도 첫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졸속 추진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

표했다. 또한 시행 3년째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도와 교육청간 비용분담 갈등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동참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특위 운영해 핵심과제 추진

제9대 후반기 핵심과제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양대 특위는 간담회를 열고 특위의 역할과 중점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균형발전특위 특위의 역할로는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갈등해소와 정책연구, 집행부에 대한 정책건의, 집행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 및 예산배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정역할이 제시됐다.

청주청원통합지원특위는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활동방향, 청주청원통합 로드맵에 따른 지원대책 등을 협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의원 연구활동 3건 심사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16회 정례회 회기 중 네차례 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을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11월 23일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직원연찬회 관련 건의사항 등을 지적했으며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88억 3,991만원 보다 6억 6,488만원(△7.52%)이 감액된 81억 7,502만원이다.

12월 12일 실시한 제3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충청

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 협의의 건」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3년도 연간 회기일정을 정례회 및 임시회를 9회, 회의기간은 125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 91억 3,011만 8천원보다 0.09%인 7,800만원이 감액된 91억 2,231만 8천원을 심사 의결 했다. 또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우호교류 추진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등 2건을 심사했다.

12월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북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방안(이광희 의원 외 4명) △충청북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교육 강화 및 평생학습기반시설로서의 학교도서관 발전방안(박상필 의원) △충청북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실태조사 및 사업 개선방안(최미애 의원 외 4명) 등 3건의 의원 연구 활동을 모두 승인했다.



▲ 11월 23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등 제정



▲ 11월 9일 충청북도 응급의료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도내 의료기관 및시군 보건의료담당공무원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 현안에 대한 현장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의원 발의를 통한 민생 관련 조례 제정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는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등 총 9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총사업비 105억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인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건축 현장과 충북대학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등 주요 현안사업장을 현지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11월 29일과 30일에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금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2013년도 신규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소관 예산 1조 5

천여억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8건 9억 5백여 만원을 삭감했다.

12월 13일에는 의원 발의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 관련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미애 의원 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매년 1,500명에 이르는 학업중단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광희 의원 발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일부 불합리한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의결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16회 정례회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국과 문화관광환경국의 도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예산·정책 등의 의안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8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발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날카로운 질문과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을 촉구했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해 행정용어 순화운동과 각종 문서에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과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예산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철저히 수립하여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진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수립을 제언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지난 10월 18일 개소한 NGO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사항을 보완한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 등을 신설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심사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시민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NGO센터 지원 근거와 도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에 면제조항 신설로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2012년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농업기술원 영동와인연구소 신축부지 현장을 확인 하고 있다.



▲ 11월 15일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농가를 방문해 농업기술원의 하이베드 딸기재배 농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 MRO산업, 태양광산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기농엑스포 개최, 유기농 특화단지 조성 등 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정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한 후 2013년에 편성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70건의 자료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조성중인 투자유치기금이 현재 100억원 중 60억원만 달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투자유치기금 100억원 달성에 박차를 가해줄 것과 FTA 체결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충북도가 선제적인 농민교육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MRO산업, 태양광산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계

유기농엑스포 개최, 유기농 특화단지 조성 등 도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28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52건의 촉구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FTA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과 반대로 농정국 예산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세계 유기농엑스포와 MRO산업 및 태양광산업과 관련한 예산이 철저히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FTA 대응 농업분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다.

한편, 11월 15일에는 하이베드 농법 딸기농가와 친환경 자원화 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예산안·디자인 조례 등 심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316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 확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처리요구 31건, 건의 사항 60건을 도출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지방채 발행문제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방안 △세종시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소도읍육성사업 △진천음성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확대 △화학사고 대비 철저 △4대강사업 후속조치 △오송2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 발전적인 주문을 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제천 수산면 4대강 사업현장과 제천한방생명과학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시설과 추진상황

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에 관광버스가 많이 이동하는 장소이므로 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과 국궁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만료전 손상된 수목 보수 및 보강, 주차장 보도블럭 개선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장 활용방안 △기타 소방본부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편성을 당부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그리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가 개정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경관이 우수한 충북 만들기에 앞장섰다.



▲ 2012년 11월 16일 제천시 수산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사무감사·학교 이전부지 확인



▲ 2012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강당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 처리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별 학생복지예산 편성, 교권보호시스템, 고독성 농약 사용 문제,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소규모 학교 전기요금 문제, 인조잔디 운동장 스프링 쿨러 확보, 우수 진로지도상담교사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에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에 소재한 청주

농고 목장 이전 부지를 현지방문하고 이전 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에 걸쳐 201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11월 30일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계획안 및 청주 울량2 지구 내 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했다.

12월 12일에는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12월 17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도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2012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제316회 정례회)

전액 국비요구, 누리사업비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원)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중 7차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 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충청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수정예산을 포함한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494억 2,190만 5천원이 증액된 총 3조 3,703억 8,167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19억 2,199만원 증액된 2조 8,905억 6,05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4억 9,991만 5천원이 증액된 4,798억 2,111만 7천원이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총 8개 사업 323억 87만 4천원을 삭감, 총 예산액을 2조 8,582억 5,968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총 72개 사업 379억 1,49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된 누리사업비 등 8건 323억 87만 4천원을 제외한 56억 1,409만 2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 1억 7,503만 6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12월 10일~11일 심사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

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662억 2,848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조 9,678억 2,304만 6천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1건에 대해 32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누리사업비 등 41개 사업에 495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12월 17일 상정된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인 626억 1,870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조 3,885억 3,269만 5천원으로, 위원들은 제2회 추경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이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과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비 조정차원의 사업비 등 2억 7천만원만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12월 18일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2조 846억 7,83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인 371억 5,229만 9천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비 등 2건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 12월 5일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심사방침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제316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답변

김 양 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질문]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예산 확보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어떤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쉬운지를 판단하고 연구용역 등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며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정치권과 같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민선5기 들어서 신규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로 사업, 중부내륙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유치, 바이오살림 휴양밸리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등이 있습니다.

[질문] 2012년도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27.6%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존세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논리는 문제의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중 자주재원의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비확보액이 커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재원을 늘리려면 우선 지방세를 증액시켜야 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거래 등이 늘어나도록 해야 하고 세외수입 개념에서 여러 가지 경영수입의 확충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개방형직위의 가장 순수한 목적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돌아주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선거캠프의 측근 등을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입니다.

최근 임용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은 도지사 선거 때 도와준 사람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 입니까?

[답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은 충북생활체육배구협회 부회장이며 또한 충북배드민턴협회 이사, 충북장애인육상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등 체육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질문] 민선5기 출범 이후 개방형직위 공모제 등을 통해 임명된 인사들의 업무실적과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관련 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당연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질문] 지사 부인께서 공무원을 대동하고 관용차를 이용하여 행사에 다닌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취임 이후 관용차량을 이용해 부인을 수행하거나 운전 해 준 공무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 요지에 없는 사항으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 중 일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경비집행내역에 있어서 허술하기 이를 데가 없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외 6명)

-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최미애 의원 외 6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경제부지사 운영, 한시기구 조정, 세종사무소 운영, 소방기구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조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외 8명)

-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교육적 소외와 유해환경 노출이 심화되고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과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충청북도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외 6명)

-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일부 불합리한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외 6명)

- NGO센터 운영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단체의 편의를 위해 사용료 징수금액을 NGO센터 운영규정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등 법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동물의 보호·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도경 의원 외 6명)

-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가칭)석창초등학교 설립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학교 개교시기 등이 조정되어 당초 (가칭)석창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옥동초) 신설 대체 이전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도정현안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비즈니스센터 신축과정에서 종합복지행정타운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부지를 혁신도시 내의 C1블럭에서 클러스터용지(클7)로 변경하여 신축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청주공항관리(주) 자본금의 3%를 지분출자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권기수 의원 외 6명)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위원회 및 각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수를 상향 조정함

주요처리의안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누리과정 도입(확대) 등으로 공립유치원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기능 확대를 통한 취원을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립(단설)유치원 4개원을 설립 하고자 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함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물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 하여야 하는 물품의 단가를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헌경 의원 외 6명)

- 최근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설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성동, 주중동 일원)에 따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7,678여세대 입주예정으로 학교설립(초1, 중1) 필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희 의원 외 6명)

- 민원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 조항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등을 추가하기 위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및 건물 등의 취득사유 발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알기 쉽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고, 시설·설비의 사용 신청 및 허가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고자 함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출자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건의 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조번호를 개정하고, 여유기구를 폐지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함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과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 및 한시정원과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단위기관별 직급의 정원 중 4급이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5분 자유발언

“이상설 선생 독립운동 테마파크 조성하자”



이수완 의원

최근 독도 문제와 함께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던 ‘헤이그특사’의 정사인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철회운동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1906년 국외로 망명한 선생은 북간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

주 등에서 항일 투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선생은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결국 1917년 3월 2일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니콜리스크에서 순국하였지만, 1905년부터 순국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전개된 각종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에 충북인으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한 이상설 선생을 주제로 이상설 독립운동기념관과 이상설 선생이 관장으로 있던 성균관이나 이상설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 및 대전학교 등을 설립하여 전인교육의 산실인 청학동처럼 아이들에게 충·효·예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이상설 선생 독립운동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도 벗어난 행태에 특단의 조치 있어야”



최미애 의원

최근 우리 의원 중에는 하루에 백 수십통의 협박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하라는 것과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자내용으

로 볼 때 공무원들이 개입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세입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세입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도

교육청 간부가 의회의 예산심사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부 학부모 단체가 주도한 집회를 보면서 관제데모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자세로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에서 평가한 2012 의정활동

이광희 의원

기자단이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충북도청 정치담당 기자단이 지난 12월 31일 기자실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이광희 의원을 '2012년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광희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서 정책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광기 의원

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사)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이 노광기 의원을 '2012년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했다.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은 지난 5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6개월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성실성 등 6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수회에 걸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미애·김형근·이광희·김종필·이수완 의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도의원'

충북도의회 최미애, 김형근, 이광희, 김종필, 이수완 의원이 11월 29일 충북참여자치연대 등 3개 단체가 선정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3개 단체는 도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성실한 자세가 돋보였고,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된 감사였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
조하경과 발표 기/자/회/견



의정 활동 이모저모



▲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 질환센터 방문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 질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 및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 청주국제공항 진입로 공사현장 방문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13일 청주국제공항 북측진입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당부했다.



▲ '충북여성새로일하기' 현지 방문

정책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현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정경기장 방문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14일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정경기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딸기 재배 농가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위치한 딸기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베드 딸기재배 농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제천 수산면 4대강 사업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6일 제천 수산면 4대강 사업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청주농고 목장 예정지 방문

교육위원회는 2012년 11월 27일 청주농고 목장 예정부지를 방문해 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 김광수 의장 연탄나누기 행사 참석

11월 16일 김광수 의장이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연탄을 나르고 있다.



▲ 충청북도의회 전체의원 직무연찬

11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의 발전정책' 과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전체의원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동양일보

2012년 11월 07일 (수)
15면 인용

흑룡강성인민대표회의-충북도의회 교류 확대

충북방문, 지역발전 협의 논의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손계분 부비서장 등 8명이 6~9일 충북도의회 등과 우호 증진 발전 방안 교류협력 확대

또 우호증진과 교류확대 모색을 위한 좌담회도 갖는다. 이들은 이날 증평 한삼인 공장, 직지 와 한국의 옛 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고인쇄박물관을 견학하고 8일

충북일보

2012년 11월 14일 (수)
04면 정치

시작부터 송곳질문 연발 피감기관 진땀 ‘뽕뽕’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상당수 도의원 수백장 자료 분석 철저 준비

했다. ‘형감 때 잘 볼 뻔’이라는 의도가 다분했다. 의원들은 웃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두경을 열어보니 모든 게 달랐다. 상당수 의원들이 수백장의 자료를 몇 날 며칠에 걸쳐 분석하는

상당수 공사 지역을 하자보수 의원 기간 만료 후에 현장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도 없는 시기에 현장에 나가서 무얼 하자는 거냐고 질타했다. 피감기관이 조율해왔다.

중부매일

2012년 11월 20일 (수)
02면 종합



충북도의회·빈곤통인민위 우호교류 체결

충북도의회와 베트남 빈곤통인민위원회가 우호교류를 체결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 까지 베트남 빈곤통을 공식 방문중인 가운데 첫날 양 지역 발전을 위해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양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팜반봉(Pham Van Bong) 빈곤통인민위원회 의장은 “충북도의회와의 상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효과를 더욱 확대하고 IT 분야 기업 등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투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팜반봉 의장은 또 2013년 화강암·비석·석재 등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 “빈곤통인민위원회의 대표단을 구성해 11월 20일에 충북도를 방문할

忠清日報

2012년 11월 12일 (월)
09면 종합



인터뷰 첫 정례회 김광수 충북도의장

충북도의회가 12일 오후 2시 316회 정례회 개최식을 갖고 4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정례회는 연중 도의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집행부의 활동상을 따지고 도정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예산심사가 핵심을 이루게 된다. 정례회를 앞두고 9대 도의회 후반기 의사당을 전 김광수 의장(사진)이 생각하는 정례회의 방향과 향후 도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의례적 감사 탈피... 대안 제시

저 13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레전드 감사에서 탈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안 제시를 위한 시간 보

는 산이 깊고 높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예산이 전 시·군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약하고 논리가 부족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가

를 찾고 있다. 현재처럼 아무때나 의원이 요구하면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의원마다 정례회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고,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로 집행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

예산 배분 지역균형발전에 초점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둘 생각인가. “의장이 된 후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세웠다. 그간 많은 소외된 분야의 단체와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앞으로 도민들의 뜻을 찾아 도민들이 원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모쪼록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

/김정호기자

신규사업 과감 정리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 너무 많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댈 생각이다.” -대집행부발전 회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제에 새로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대집행부발전의 수준과 관계가 있어 개선방안

충청타임즈

2012년 11월 19일 (월)
04면 종합

인력배치 허술·운영부실 도마위

도의회 교육위, 충북발전연구원 행감

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도의 ‘보레인’이다.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한다. 이곳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를 추진하는 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이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을 겸직하면서 지원단 업무에 100% 참여하기 힘들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새누리당)은 “연구

28명에 불과해 늘어나는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병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연구원 안에 부설연구센터가 너무 많아 본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연구

정책복지위, 연구원 효

정책형 원장 잘못 시인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과제 편중, 불합리한 연봉 책정, 인력확보 노

충청타임즈

2012년 11월 30일 (금)
02면 종합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합격점’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생생한 주민 목소리 전달’

집행부 책임 회피식 답변·형식적 감사준비 지적도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13~23일)를 모니터링 결과 도의회 내부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사안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녔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며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묻기까지 자비로웠다”면서 “전혀 지적 없이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세우는 등 문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집행 부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감사 준비와 무성인 답변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집행부의 책임회피식 답변이 여전했고, 담당업무에 제

충청타임즈 “충북도 농업 예산 증액해야”

도의회 산업경제위, 내년 세입·세출 심사서 요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7일 농정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북도의 예산 증가에 따른 농업 예산의 증가 필요와 유기농업의 성공적 개화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윤성욱 의원(민주·총2)은 농촌지역 유류지 활용으로 농의 소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사업이 현재 민간사업자

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유완백 의원(민주·보은)은 국가간 FTA 체결로 농촌의 삶이 어려워지는 데 충북도의 예산이 증가함에도 농업예산의 비율이 낮은 이유를 묻은 뒤 농업예산의 증액 등을 주문했다.

김도경 의원(통진당·청원2)은 유기농 엑스포의 성공 개화를 위해

한 사업이 많이 이를 지원하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도 행사예산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권기수 의원(민주·제천1)은 충북도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도민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세수수익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천영준기자

cheonkiza@ccimesk

충청타임즈 충북농기원 예산편성 중북·방만 질타

도의회 산업경제위 “농민 필요 특화작물 재배해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29일 농업기술원 대에서 중북·방만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연구자들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화작물을 재배해줄 것도 당부했다.

권기수 의원(민주·제천1)은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기술원 내부 연구사를 활용하고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술원이 과다·중북 예산

과 함께 방만하게 예산 운용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의원(통합진보·청원2)은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식물공장이 주변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성욱 의원(민주·충주2)은 “원예연구과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채소, 과수, 화훼, 산채 등의 생산 수입이 올해도 1610만원이고 내

년 예산 수입도 동일 기후변화 등 변수 심 계상할 것을 요구했다 유원백 의원(민주·원)은 5곳의 연구소를 연구소별 실적자료를 들에게 꼭 필요한 연 출할 수 있게 특화할 을 모색하라고 주문했 황규철(민주·옥천2) 문가를 초빙해 실시하 기술교육이 내년 시 행 된다”면서 “운영을 통 효과가 발생하면 다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 부했다.

choonkiza

충북일보 충북도 내년 예산·기금운용안 심사

도의회 예결특위 12일까지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가 5일부터 12일까지 충북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내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충북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2천461억 원이 증액된 3조 3천67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8% 증액된 2조8천87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5% 증액된 4천 798억 원이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억 원이 증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1천547억 원이 증액된 1조 7천51억 원이다.

김영주 예결특위 위원장은 “2013년 충북도 재정운용의 중점 및 기본방향에 경성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극대화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결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벌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민간 이전경비와 각종 축제성, 행사성, 일회성 경비, 불용액 과다발생사업, 특히 지방채무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5일 의회사무처와 기획관리실,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엄재천기자

충청일보 “무상급식 부족분 학부모 부담 불가”

도의회, 도·도교육청 합의 촉구... 차질없는 추진 강조

충북도의회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논쟁을 중단하고 현명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분담액을 놓고 법과 규정을 벗어나 공공기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중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김광수 도의회의장은 “시행 3

타했다.

김 의장은 “무상 등의 이유는 도와 식비를 산출하는 근 해 차이를 보이고 있 대한 합의 없이 각각 회에 제출해 도민들 성하고 있다”고 비난 김 의장은 “도의 김까지도 서로의 주 에서 (타 기관에 다 (도교육청) 화반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380억9천만원 감액

충북도의 내년 예산이 380억9천 만원 삭감됐다.

10일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억7천만원 등 총 380억9천만원을 삭 감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그간 연례행사처럼 지적돼 온 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종을

기 위해 규정이 미비된 사업들 액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주 예결특위위원장은 “일부 사정부의 (가)내시가 없음에도 간으로 예산을 계상해 예산계 삭감→재계상을 반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한 탄력적 집행을 위해 편성

하는 포(D-1)예산안 규모가 3조 3

한국일보

충북 무상급식 갈등

의회 중재 적극 타결

무상급식 예산 분담금을 둘러싼 충북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도의회의 중재

덕에 극적으로 해소됐다.

김광수 도의회의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총액

을 933억원으로 정하고 도가 465억

원, 교육청이 468억원을 각각 부담하

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시종 지사의 지시로

충청매일

“정부 지원 확대하라” 충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삭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충북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10일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편성해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누리과정 사업비 551억원 가운데 295억원(54%·6개월치)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디에 다니든지 무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 것이다. 현재 만 5세 아동에게만 적

용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누리과정 사업비 708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다른 시·도의회도 국비지원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했다.

도의회가 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840억원)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예결특위는 또 풀(POLL) 예산으로 편성한 도정

업무추진 학술운에 1억5천만원, 진천 스포츠(3억9천만원), 엄비(10억6천만 단 출연금(2억 지방도 확장 및 용곡~미원 재 정비(25억원)는

예결특위는 시행정 운영수비 등으로 요충 가운데 1억7천 2013년도 도 안 심사결과에는 본회의에서 로 이송할 예정

동양일보

응급환자 의료 처치 능력 강화

충북도의회, 조례안 의결

충북도의회가 응급환자응 응급처치의 사용법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0일 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도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자동제세동기(심장 충격기) 설치 홍보 관리 교육 등에 대한 추진계획도 포함하도록 했다.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과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 처치 정기교육 등도 담겨 있다.

<지영수>

9.9 X 5.8 cm



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통합시 만드는 힘

장선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새해 첫날 낭보다.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합 청주시법)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한 것. 통합의 법적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로 결정된 청주청원 통합이 커다란 고비를 또 하나 넘었다.

통합 청주시법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담겨 있는데,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반영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도 포함됐다.

이번 청주시법 통과는 청주청원 통합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과 지역의 단합된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지난해 6월 청주시가 의회 의결,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했고 충북도의회도 적극적인 찬성 결의를 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청원·민주당)은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공식건의를 받아 10월에 통합청주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법률안 심의 과정은 험난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 특례조항에 부정적이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충북도의회,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청주시·

청원군 등 지역이 모두 나서 국회와 정치권, 정부를 설득했다. 통합 청주시법은 민주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지사·시장·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고, 대선 과정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통합 청주시법에 따라 앞으로 통합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는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합 청주시 청사와 구청사 입지선정, 4개 구 행정 등에서 지역 주민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 상생발전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각종 행정사무 통합작업도 작은 일이 아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와 지방세 및 예산·회계·기금 등의 재정 통합,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한 정보·통합시스템 통합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 산고(産苦)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시를 출범시키기 위한 도민들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도민들은 주민투표와 통합시법 제정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신념, 단합된 노력을 보여 줬다. 바로 통합시 출범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다.

9대 의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광희 의원 (교육위원회)

도의회가 되면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또 네 번의 정기 예산결산심사를 합니다.

그중 세 번을 마쳤습니다. 아직 임기는 일년 반이나 남았지만 정기의회는 한 번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9대 의회는 20년이 된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존재감을 확인한 의회였습니다. 저 개인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도 역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을 앞두고 급식판 안정성 검사를 시작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거수기논란’을 겪었고 이어 고교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연구조사 과정에서, 학습자율 선택권 관련해서, 특히 올해는 중학교 학교통폐합과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관련해 문제제기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청의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다는 질문을 시작으로 정당후원교사의 징계문제와 교육행정 집행시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 했습니다.

교육청과 의회와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들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정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충북도청 기자단 선정하는 2012년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판 안정성 연구, 야간자율학습 실태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와 교육위원들과 함께 연구한 ‘농·산촌 작은 학교 연구’까지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비정규직 토론회를 비롯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하는 도의원으로서 나름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계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 하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대체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년 여 남은 의정활동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최선을 다해 도민의 편에서 활동하는 도의원이 되자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할 따름입니다.

도의회가 감당하는 행정기관은 도청과 도교육청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신하는 소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행정부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의회의 시스템 취약은 도의원 개인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도의회 자체 시스템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9대 의회는 여러모로 새로운 도의회를 구현한 의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과 노력을 했던 의회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대안모색과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